

불황 칼바람에 온정도 찬바람

광주·전남 공동모금 10년만에 감소...복지시설 발길 뚝

최악의 경기침체 속에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 문화도 찬바람을 맞고 있다. 또 연말을 앞두고 복지시설을 찾는 온정의 손길도 뚝 줄었다.

25일 광주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모금한 금액은 모두 48억7천323만원. 지난해 같은 기간 53억4천550만원 보다 4억7천227만원(8.8%)이나 줄어든 액수다. 공동모금액의 모금액수가 지난 1999년 이후 꾸준히 상승한 점을 감안해볼 때 '10년만의 모금액 감소 추세'는 불황이란 점을 감안해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같이 모금 실적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물품 및 지정 위탁 사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공동모금회 측의 설명이다.

광주와 전남 공동모금회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09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 두달

동안의 목표 모금액은 66억8천만원. 이는 지난해 62억2천만원보다 7.3%(4억6천만원) 상향조정된 금액이지만 실제 목표 달성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금철 부장은 "모금 실적이 저조하면 빈곤가

정,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성금 배분 계획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올해 목표액 달성이 상당히 벅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직자와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이뤄진다면 목표액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복지시설을 찾는 온정의 발길도 뚝 끊겼다. 광주 A종 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예년에 비해 겨울용품 등 후원 물품 지원이 눈에 띄게 줄면서 쌀쌀한 겨울맞이를 하고 있다. 이 복지관 관계자는 "지난해 겨울만 해도 김정갑치를 지원하겠다는

곳이 4군데 이상이어서 어려운 이웃 60~70세대에 김치를 지원했는데 올 겨울에는 지원 기관이 단 한군데 뿐이어서 20세대밖에 지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주의 B아동복지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매년 연말을 전후해 후원의 손길이 불렀지만 올해는 거의 없다. 이 시설에는 기업체들의 후원금이 줄면서 예년 400만~500만원에 달하던 후원액이 15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11월 중순부터 답지하는 의류나 연료, 음식물도 전년에 비해 70~80% 정도나 감소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송회 사건' 26년만에 무죄

(5개 대표적인 공안 사건)

광주고법 재심 공판...9명 전원 명예 회복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공 조작사건으로 꼽히는 '오송회' 사건 관련자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아 26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한주)는 25일 오송회 사건으로 지난 1983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광웅(당시 42세·1992년 사망)씨 등 전북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사 9명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고문, 협박, 회유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고, 검사가 제출한 진술증거 또한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등 유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은 '전기 통담구이' 등 갖가지 고문을 가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고 자백하도록 했고, 검찰도 똑같은 진술을 강요했다"고 판시했다.

오송회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1983년 전주지법은 "지성인이 몇 대 맞았다고 허위진술할 수는 없다"며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6명은 선고유예했으며, 항소심인 광주고법은 9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에 대해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자 9명은 같은 해 8월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송회' 사건= 지난 1982년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와 5·18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를 지내고, 시국토론을 하며 시인 김지하씨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당한 사건. '오송회'는 다섯(五)명의 교사가 소나무(松) 아래 모였다는 의미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미당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이 무, 배추 등 농산물을 실은 상여를 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측 추산 2만여명의 농민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경찰 집회 대응 달라졌네

'상경집회 원천봉쇄 위법' 판결 후 농민에 간식 주고 교통편의 제공

'상경집회 원천봉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 첫 대규모 농민집회를 맞아 경찰의 대응방식이 180도 달라졌다.

전남경찰은 농민들의 상경을 저지하는 대신 불법시위물품을 회수하는 데 주력했으며, 농민단체들도 큰 저항 없이 경찰의 조치를 따랐다.

2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장이다.

날 오후 2시 서울시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 참석을 위해 상경한 농민들은 전남지역 20개 시·군에서 약 2천여명. 이날 집회는 '금지통고 된 집회·시위라도 참가자의 상경을 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상경 집회였다.

전남경찰은 그동안 시·군 주요 나

들목마다 경찰을 배치해 농민들이 탑승한 버스를 막았고, 농민들은 이에 격렬히 반발했다.

그러나 25일 상경집회를 맞는 경찰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농민들의 상경을 막을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전남경찰은 이날 집회과정에서 사용될 지 모르는 불법시위물품을 회수하는 데 힘을 쏟았다.

경찰은 농민들이 탑승한 버스에서 소주와 맥주 등 주류 333장자를 회수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간식을 나눠주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친절(?)까지 보였다. 나주, 광양 등 상당수 경찰서는 농민들에게 빵과 우유 등 간식을 제공했으며, 영광에서는 특산물인 모시송편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돌려보냈다가는 직권남용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어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헌주기자 ahj@kwangju.co.kr

다 중의 건축·산업·지체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역시 : 061) 337-0571

"한 맺힌 빨갱이 누명 벗었다" 회한의 눈물

재판장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이례적 입장 표명

"피고인 본인과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25일 '오송회' 사건 재심 공판이 열린 광주고법 301호 법정. 재판장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 이한주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26년 동안 '빨갱이'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온 오송회 관련자들을 위로하려는 듯 자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 선고가 피고인들의 바람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문을 연 재판장은 고문과 협박으로 일관된 경찰과 검찰 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1·2심의 선고도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데 이론이 없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무고하게 받은 고통으로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사죄를 드린다"고 밝히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사법부가 이 사건을 깊이 새겨 좌로도, 우로도 흐르지 않는 보편적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도 관료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법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공판이 끝난 뒤 피고인들과 가족, 문규현 신부 등은 법정 밖에서 열사 안으며 기쁨과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오송회 관련자들은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자신들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돕는다는 입장이다.

오송회 사건의 주범적인 조성용(71)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실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했던 채규구(67)씨는 "사면복직되고 나서도 학교와 동네에서 '무서운 사람'으로 낙인 찍혀 보이지 않는 감시와 피해를 봤었다"며 "이번 판결로 국가 권력에 아첨해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주건설 악성 루머 수사 의뢰

대주건설이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주건설은 부도설 등 악성루머를 퍼뜨린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광주동부경찰에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의뢰에 따라 괴소문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주건설은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환경이 좋지 않는데 괴소문이 나돌아 피해가 심각하다"며 "루머의 상당수는 투기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밝혔다.

박영석 대주건설 사장은 "브랜드 가치 유지와 건전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악성루머 근절에 나섰다"고 말했다. /인헌주기자 ahj@kwangju.co.kr

헤어진 여자친구 집서 귀금속 '슬쩍'

○광주남부경찰은 25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원룸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S(26·광주시 북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5일 밤 11시경 광주시 서구 원룸에 사는 전 여자친구씨의 집에 침입해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25만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

○경찰 조사결과 S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S씨가 훔친 귀금속을 훔쳤는데, 경찰에서 "금전이 필요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게 됐다"고 진술.

○S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자주 다니던 광주의 한 금은방에 훔친 귀금속을 팔았다가 이를 눈치 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탐미.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무경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11월 27일 27복28금 김수희

12월 11일 11복12금 설운도

호박 나이트 OPEN

광주첨단 · 폭스존열

무킹전국 365일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별이 보이는 꿈에 그리던 나이트가 첨단상륙!!